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50

사무엘을 만난 사울

(사무엘상 8:1~9:25)



여러분, 그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
사사들의 이야기를 만나봤어요.

에훗, 드보라, 기드온, 임다, 삼손...
모두 성경책에 기록돼 있는 사사들이죠.

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
마지막 사사가 되었어요.

왜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
이스라엘 백성들은
자기들의 왕을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.

“사무엘님,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.
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은 성격이 공정하지도 않고
바르지도 못해, 당신처럼 우리를 지혜롭게
이끌어 줄 수가 없을겁니다..”

“그렇습니다, 사무엘님. 그래서 말인데요.
이참에 우리도 ‘왕’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?
사실 우리 주변 나라들 모두 왕을 가지고 있는데
우리만 왕이 없는데 그동안 좀 그랬거든요.”

사무엘은 이 부탁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.
이스라엘엔 이미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
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굳이 왕을 세우겠다는 건
사람들의 교만한 생각이었으니까요.

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
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

**“늘 그렇듯 백성들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구나.
사무엘아 백성들이 원하대로 해주거라.
다만,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
저들에게 알려주거라.”**

그래서 사무엘은
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.

“중소, 여러분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.
이것만은 꼭꼭히 알아두시오.

왕이 생기면, 여러분의 아들들은 왕을 위해
군대에 들어가고, 왕을 위해 밭을 갈아야 할 거요.
여러분의 딸은 왕을 위해 요리를 해야할 것이며
또 여러분이 수확하는 것의 가장 좋은 부분을
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요.

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이나 해봤소?
그때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어요.”

사무엘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
사람들의 오만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어요.

**“우리는 왕을 원합니다!
왕이 최고예요! 왕을 만들어주세요!”**

결국 하나님께서는,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시기로 했고.
어느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

**“내일 이맘때쯤, 내가 너에게 베냐민 지파의
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.
그 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란다.”**

한편,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‘기스’라는
부자가 살고 있었어요.
기스에게는 ‘사울’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
사울은, 용모가 아주 뛰어났어요.

“어머머 어머머. 저 잘생긴 얼굴좀 보.
이스라엘에서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을거예요.”

“아, 그뿐인가? 저 흰칠한 키 좀 보게.
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구만!”

**사울을 직접 본 사람들은
모두 하나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.**

**하루는 기스가 기르는 나귀들이
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.
기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울을 불렀죠.**

**“어허. 나귀들이 대체 어디로 간게냐?
사울아, 네가 하인 한 명을 데리고
나귀를 찾아오려무나.”**

사울은 열심히 나귀를 찾아다녔어요.
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며 언덕과 골짜기,
평야를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 뒤져봤지만
나귀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죠.

어느덧 시간이 늦어지자 사울이
하인에게 말했어요.

“에잇, 허탕만 치고 안 되겠구나.
이만 돌아가자.
이쯤되면 아버지께서
나귀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.”

그러자 하인이 말했어요.

**“아이고 주인님, 제가 알기로 말이죠.
이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다 합니다.
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분이지요.
그 분이라면 우리의 나귀를 찾아주실 수
있지 않을까요?”**

**“오. 그래? 그런데 그런 분께 빈손으로 가도 될까?
우린 지금 가방에
음식도 없고, 선물로 드릴만한 것도 없잖아.”**

**“헤헤. 다행히 제가 조금의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.
이걸 그분께 드리면 관참을 겁니다.”**

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
사무엘을 찾아 마을로 들어갔어요.
마침 길에는 물을 길러 나온 여인들이 있었죠.

**“저, 뭐 하나만 물읍시다.
이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십니까?”**

**“어머, 방금 여길 지나가셨어요.
서두르시면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.”**

**정말이었어요! 두 사람이 바바른 걸음으로
길을 따라가자 금방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죠.
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전날 하나님께서
말씀하신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
첫 눈에 알 수 있었어요.**

**“저, 어르신,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.
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는 집이
어딘지 아십니까?”**

**“당신으로군요. 내가 바로 선지자라고.
오늘은 나와 함께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
내일 아침에 댁으로 돌아가시오.
잃어버린 나귀들은 이미 내가 찾아 두었소.
당신은, 이제 온 이스라엘이 우러러 보는 사람입니다.”**

**사울은 깜짝 놀랐어요.
나귀 얘기는 거내지도 않았는데
사무엘이 알고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스라엘이
자신을 우러러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.**

**“저기,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...
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
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.
그리고 저희 집안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
가장 작은 집안이구요.
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저를 우러러 본다고
하시니까 아,이것 참...”**

**사무엘은 말없이 사울과 하인을
식사 장소로 데리고 갔어요.**

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이 앉는 자리에
사울을 앉히더니 요리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
사울의 접시 위에 올려 주었죠.

“가장 좋은 넓적다리 부위요.
그대를 위해 따로 준비해 둔 것이니
이걸 드시오.”

그렇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
폭 쉴 수 있었어요.

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궁금증이
떠나가질 않았죠.

‘이 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거지?
그리고, 이스라엘이 날 우러러본다는 게
대체 무슨 뜻일까?’

그렇게 사울의 이상한 밤이 깊어 가고 있었어요.

하나님의 경고에도 왕을 원한 이스라엘 백성들!
과연 사울은 그들이 원했던 훌륭한 왕이
될 수 있을까요?